韓國高分子學會 創立 20周年記念祝辭

盧　玲　濬
미국 신시내티대학

韓國高分子學會가 創立된지 벌써 20周年을 맞이하여 그間 刮目할 發展을 이룬데 대하여 眞心으로 祝賀와 讚辭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 20年間에 高分子學會가 先頭에 나서 이끌어온 韓國高分子學界의 發展相은 실로 눈부신 감이 있습니다. 會員의 總人員數로 보나 學術誌論文의 數와 質로 보나 또는 여러 大學에 있는 高分子系統의 敎育의 規模와 範圍로 보나 世界 어느 先進國家와도 비교할 수 있는 段階는 벌써 到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國內에서의 이러한 눈부신 發展相은 外國에서 같은 分野의 學界에 從身하고 있는 學徒들에게는 큰 격려와 自負心을 주게 하는 것입니다. 20余年 前만 하여도 國內에 들어와 學術講演을 하는 機會에 과연 이러한 課題를 실제로 다뤄본 사람이 청중 中에 몇이나 있을까 생각해본 적도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國內 어느 곳에 가서 어떤 課題를 論하든지 항상 熱誠있고 理解性있는 對話를 청중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을 끝없이 기쁘게 생각합니다.

勿論 學界의 進步에 지지않게 國內의 高分子系 産業도 長足의 發展을 보여 國民日常生活 어느 面으로 보나 高分子物質이 쓰이지 않는 部分이 없고 따라서 一般人과 이야기할 경우에도 外國에서 高分子分野硏究에 從事하고 있다고 이야기 하면 쉽게 納得이 가는 安堵感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高分子産業界의 發展에 韓國高分子學會의 寄與가 컸을 것은 勿論 再言할 必要도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産業界와의 긴밀한 紐帶下에 高分子學會가 學術面發展의 先頭에 서서 이끌어 나갈 것은 틀림없습니다.

高分子學이 하나의 뚜렷한 學術分野로서 登場한지도 Staudinger, Carothers 등의 貢獻初期부터 벌써 一世紀에 가까운 時日이 지났습니다만 高分子學自體는 아직도 旺盛한 血氣에 찬 壯年이라 할 수 있습니다. 最近 20余年만 보더라도 Flory, Degennes 등 두명의 노벨賞 受賞者를 輩出하였고 새로운 高性能 高機能의 高分子物質은 아직도 계속 開發 發表되고 있어 高分子學徒로서 追窮할 수 있는 새로운 問題들은 앞으로도 끊임없이 擡頭할 것입니다. 21세기에 들어 이러한 學界의 潮流의 先頭에 서서 學術硏究 技術開發 學徒敎育에 中樞的 役割을 지닐 韓國高分子學會에 대한 期待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0주년 동안에 이룬 發展의 實績을 그대로 繼承하고 끊임없는 努力을 維持하는 限 이러한 期待에 充分히 應答할 수 있을 것은 틀림없습니다.

끝으로 다시 한 번 韓國高分子學會의 創立 20周年을 祝賀하며 앞날의 발전을 祝願합니다.